

《10월 선교편지》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님께!

안녕하세요! 슬로바키아 질리나(Žilina)에서 사역하는 서일원, 조정선 선교사입니다. 지난 한 달 안녕하셨는지요? 저와 가족 모두 별고없이 잘 지냈습니다.

아내는 지난 9월 4일에 한국에서 돌아왔습니다. 조금 더 한국에 머물며 요양을 하려고 했는데, 프라하로 오는 직행이 9월 4일 이후 중단된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한국에서 일주일 간의 병원진료와 치료를 받은 후 한의원 치료를 지속해 왔습니다. 건강이 많이 회복되면서 한 달 정도 더 머물 예정이었지만 급하게 짐을 꾸려 들어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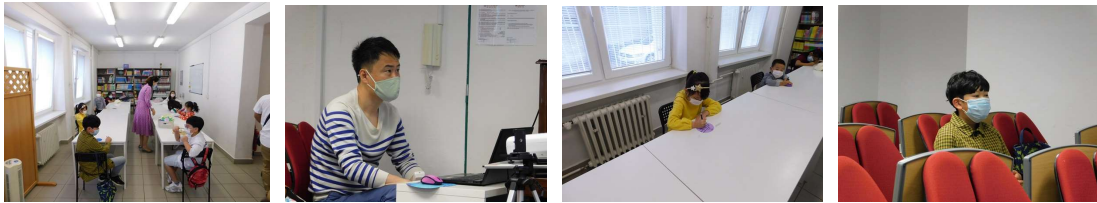
슬로바키아의 코로나19 상황은 많이 나빠졌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은 연일 확진자 발생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는 확진자가 567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구 550만 숫자를 생각하면 확진자 발생이 심각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정부에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지 논의 중이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지난 1차 팬데믹 때에는 몇몇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확진자가 나왔던 것에 비해 지금 2차 팬데믹 때에는 전국에서 다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사는 질리나 지역 한인들도 많이 조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슬로바키아의 의료 시설이 워낙 열악하다보니 제대로 된 치료도 받기 어렵습니다. 확진이 되면 집에서 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둘째 우진이는 9월부터 고등학교 개학을 해서 등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중학교 과정 포함 9년)에 비해 공부도 힘들고 과제가 많다보니 체력이 많이 달리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에는 학급에 풋살과 아이스하키를 하는 운동선수들이 있어서 분위기가 어수선했는데, 지금은 공부만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아마 본인도 마음을 잡고 공부하려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질리나한인교회는 9월에 주일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학기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시작을 못했다가 9월 첫 주에 2020년 주일학교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간 어린이들 빼고 8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모여 이번 학기 주일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한 가정이 주일학교를 맡아 진행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주일 오전에 와서 준비하고 진행하는데 어린이들이 모두 좋아합니다. 학생회도 한 가정이 맡아 진행해 온지가 6년이 되었는데, 잘 정착되고 신앙의 열매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모임)

더불어 한글학교도 시작을 했습니다. 슬로바키아 공립학교가 수업을 시작하면서 저희도 함께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4분과 18명의 학생으로 이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린이들이 한국으로 많이 돌아가서 인원이 적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신청해 주어 감사했습니다.



(한글학교)

동부 지역에서의 집시 사역은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교회 예배는 모이지만 이외에 평신도성경학교, 단기선교, 어린이/학생/청년 캠프 등은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집시들은 슬로바키아어로 로마미(romami)로 부릅니다. 생활이 어렵다보니 마스크를 사서 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집단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감염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동부 지역에서 집시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을 위해 일회용 마스크를 준비해서 보내드렸습니다. 현지 교회나 목회자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마스크를 사서 나눠주기가 어렵습니다. 또 여기는 교회들이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개인들이 알아서 해야만 합니다. 많은 수량을 보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예배에서 마스크를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보낸 것입니다.

저희 질리나한인교회는 현재 교회 예배를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손소독하고 마스크를 쓴 채 거리를 유지하며 예배합니다. 오전 예배 외에 다른 모임으로 모이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성경공부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며, 오후 모임이 쉽지 않아서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줌(zoom)을 통해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치지 않고 꾸준히 자리를 지켜나가려 합니다. 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래에 10월 기도제목을 올립니다.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묵묵히 제 할 바를 잘 감당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1일

서일원, 조정선(동인, 우진) 올림

※ 10월 기도제목

- ① 슬로바키아 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어지고 경제상황이 회복되어지도록
- ② 질리나한인교회 교우들이 신앙 안에서 더욱 성숙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 ③ 한글학교 사역을 통해 지속적으로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 ④ 아내 조정선 선교사의 건강이 더욱 회복되어지도록
- ⑤ 자녀 동인이와 우진이가 바른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